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과 대성산종합병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현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선선진, 화선선동으로 들썩이는 건설장을 보시며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21세기의 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한 군부대의 전투장이 확실히 다르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살림집들을 바라보시며 외벽을 폭면으로 처리하니 마치 대동강에 떠있는 듯배처럼 보인다고, 건축의 조형예술성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갈데 대한당의 의도가 반영된 특색있는 멋쟁이건축물,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건축술을 과시하는 걸작품이라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의 밑단부분에 상점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을 꾸려주니 보기에도 좋고 안정감이 나며 복도와 전실사이의 출입구처리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건설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의 일본새라고 하시면서 모든 건설부문에서 이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골조공사와 내외부미장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가구제작도 동시에 내밀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주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생활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도록 살림집을 더 건설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지금 건설하고있는 살림집을 축으로 대동강변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500세대 더 짓고 봉사시설들도 꾸려주게 되면 웅근 하나의 거리가 형성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하는 거리의 내외부형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멋들어지게 함으로써 건설에서 다시한번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로 되게 하자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과전하여 다음해 태양절까지 건설을 끝내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창건 기념일까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을 완공하여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가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군인들속에서 반영이 대단히 좋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성산종합병원은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병원인것만큼 당의 보건정책관철에서도 앞장에 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병원의 물질기술적토대와 환자치료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병원에서 꾸린 공원을 돌아보시면서 나무도 많이 심고 산모길도 만들어놓으니 병원으로서의 체모가 더 잘 갖추어졌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입원실도 돌아보시면서 전투훈련중에 부상을 당한 군인들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상처자리도 보아주시며 치료는 어떻게 하고있는가, 몸상태는 어떤가를 물어주시였다.

치료도 전투로 생각하며 아픔을 이겨낸 군인들의 정신력에 의해 치료성과가 좋으며 그들이 입원생활을 낙천적으로 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인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면 죽음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불굴의 강인성과 락천성은 인민군대의 고유한 기질이라고 하시면서 적들이 이것을 무서워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병원에서 보양을 받고있는 육아원과 애육원원아들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육원 원아들의 입원실들에 들어서시자 아이들이 저저마다 《원수님, 안녕하십니까?》, 《원수님, 안녕주세요.》하며 원수님의 품을 파고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꼭 안아주시며 혈색이 좋고 영양상태도 좋다고, 하나같

이 보동보동한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몇살이나, 밥은 잘 먹느냐, 무엇을 하며 놀고있었느냐 다정히 물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물음에 꿈결에도 그리운 친아버지정을 느낀 아이들은 TV에서 아버지원수님을 뵈웠다고 씩씩하게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원아들은 활기에 넘쳐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불렀으며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고 인사를 드리였다.

헤여지기 아쉬워 또다시 동동매여달리는 원아들을 달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젖어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육아원 원아들의 입원실들에도 들리시였다.

아직은 말을 제대로 번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와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명 한명 다정히 품에 안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보육원들과 간호원들의 품에 안겨있는 애기들의 볼을 쓸어주시며 병원에 입원하기 전 애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한시름 놓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몸무게관찰표를 주의깊게 보시며 아이들의 몸상태가 나이에 맞게 정상상태에 이르렀다고, 3개월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그럴수록 마음을 놓지 말고 더 잘 돌봐주라고 당부하시였다.

원아들이 퇴원한 후에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하자면 육아원과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이 그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품속에서는 허약한 아이들이 단 한명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대성산종합병원에 찾아와 몸이 튼튼해진 원아들을 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친부모의 심정으로 온갖 지성을 다하여 아이들을 보양한 병원의 일군들과 군의, 간호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성산종합병원을 기쁜 마음으로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병원의 일군들과 군의, 간호원들이 환자치료와 병원관리운영에서 보드라운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이 5월 19일 4.25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주체문화예술발전에 또 하나의 역사적리정표로 아로새겨질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마련해주시고 21세기 문예부흥의 위대한 진로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시며 당사상전선의 전초병,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는 그들을 고무해주시였다.

새시대 문학예술혁명의 기관차가 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풍으로 당과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이 지향하는 시대의 송가,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새롭고 특색있게 형상하여 화려했던 공연무대를 펼쳐

놓았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과 방창 《사랑에 대한 생각》, 경음악 《백두의 말발굽소리》,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 《장군님 생각》, 경음악과 노래련곡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녀성독창과 방창 《내 심장의 목소리》, 녀성중창 《전선행렬차》, 경음악련곡 《세계명곡류음》, 녀성4중창 《달려가자 미래로》, 중곡 《인민은 일원단심》의 종목들이 올랐다.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는 종목들로 장내를 들끓다놓

으며 출연자들은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나래치는 시대의 벽찬 술결, 사랑과 정으로 뜨거운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해가는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새로운 형식의 참신한 노래형상과 열정적이며 세련된 기악, 높은 예술적기량과 화려한 무대배경 등 황홀한 음악세계는 관람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총진군대오에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 힘과 열정을 북돋아주는 모란봉악단의 공연

은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으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승리와 번영의 최전성기로 빛내어나갈 문학예술인들의 철석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상에 술적으로 완벽한 공연을 펼쳐보인 출연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어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으며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